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인체 감염성이 우려되는 H5N1형이다. 농림부에서는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주변농가의 닭을 살처분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불안감에 긴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발병원인이 철새에 의한 전염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효과적으로 방역한다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 비슷한 의심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과 양평은 저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03년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전북 익산의 경우 닭고기 생산의 메카로서 전체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 계육시장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2개월만 버티면 닭고기 시세가 폭등하여 2004년도와 같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쯤은 시장분석을 다시 했으면 한다. 당시에는 처음 AI를 겪어서 모두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으며, 미국과 태국의 AI 영향으로 인해서 덴마크, 영국, 프랑스산 만이 수입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품질문제로

인해서 오직 덴마크산 닭고기만이 수입되었다.

2006년을 살펴보면 현재 냉동 비축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가능한 국가는 브라질, 미국, 덴마크 등 다양한 대륙에 포진되어 있고, 만일 일본에서조차 AI가 발생한다면, 미국과 브라질 가금육의 폭락은 자명한 수순이다.

이번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철새에 의한 감염이라면 일본도 AI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철새들이기 때문에 일본열도로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역시 '소비' 일 것이다. 소비자들의 적극성에 따라서 계육업계의 회복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당분간은 소비침체가 예상되나, 더 이상의 확산만 없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브라질

11월 선적분부터 일본이 정육(Bone Less Leg Meat)을 대량 구매함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가격 또한 톤당 1,700불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일본수출 물량

이 매력적이어서 한국시장의 관심도는 크게 떨어졌고, 날개의 경우 2,500불선에서 한국의 수입업체와 협상되고 있다.

한편, 6월부터 11월까지 뉴캐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AI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지난 5개월간 매월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의심스럽다.

미국

대 중국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10월과 비교해서 오퍼가격이 20%정도 상승했다. 당분간은 중국수출에 집중함에 따라 대 한국 시장에 대한 오퍼가격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내륙의 생계시세도 높아서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륙으로부터의 특별한 질병발생은 없으나, 12월부터는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

꾸준하게 중국공장을 방문하여 ‘스팀꼬치’와 ‘데리야끼꼬치’ ‘훈제치킨’ ‘훈제오리’ 등에 대해 스펙작업을 하고 있고, 매월 1,200톤 정도를 정규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는 AI와는 관계없이 수입되기 때문에 국내 생계가격의 급등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과 대비해서 맛과 품질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으며, 한국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의 업체와 기술적 제휴를 맺고 다양한 스펙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 오퍼가격은 스팀꼬치의 경우 2,600~

2,700불, 데리야끼의 경우 3,300~3,400불 정도이다.

덴마크

지난 11월 24일 덴마크산 가금육 수입금지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다. 지난 5월 고병원성 AI에 대해 OIE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 12월부터 한국수출이 재개되어서 한국시장에 다시 소개될 예정이다.

덴마크 최대 가금육 회사인 Rose Poultry의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 변화된 시장을 조사하고 다양한 수입업체와 계약을 하고 돌아갔다.

2004년 한국의 수입업체들은 Rose의 통날개(Three Joint Wings)와 I.Q.F의 장각(Regular Whole Legs)을 통해서 사상 유래 없는 수익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결론

“위기는 곧 기회이다”

2006년말 H5N1을 통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희비가 교차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력을 통해 시장에서 적응하고 생존하는 기업은 2007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계육산업은 먹거리 산업이기보다는 시세를 예측하는 정보산업에 더 가깝지 않나 싶다.

업계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이야기이지만, 최초의 발생지역이 종계장인 까닭과 철새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재발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단지, 더 이상 확산이 안되기를 바랄 뿐이다. 